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가을이 온다는 것은 잃었던 식욕이 돌아온다는 뜻이다. 만산홍엽 다 진 뒤 햇빛이 덮은 산과 들에 찬서리 내릴 때 잠잠하던 식욕이 폭발한다.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해준 온갖 음식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도 이맘때다. 아쉬운 건 두 분 음식을 더는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다. 뽕기를 먹을 때 미각의 쾌락을 경험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는 게 따분하다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믿는다.

동네 상가에 단골 작은 반찬가게가 있다. 세탁소와 피자집과 빵집 사이에 '작은 부엌'이란 반찬가게가 끼여 있다. 문을 열면 이렇저런 반찬이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게 한눈에 들어온다. 환한 불빛 아래 가지런히 진열된 반찬들은 정갈하고 먹음직스럽다. 예순 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반찬가게를 꾸리는데, 이 아주머니의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다. 나는 아주머니 손맛뿐만 아니라 좋은 재료를 쓰고

기러기 찬서리 묻은 발가락 배에 붙이고 날 때

손님에게 항상 친절한 덕분일 거라고 짐작한다.

정월 보름엔 오곡밥을, 동지엔 동지팥죽을 '작은 부엌'에서 사다 먹는다. 여름엔 오이냉국을, 가을엔 아욱국을 사다 먹고, 추석엔 갈비찜, 송편, 잡채, 대구전 따위를 먹는다. 명절 때마다 '작은 부엌'에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까닭은 시간과 수고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맛도 좋기 때문이다. '작은 부엌'에서 만드는 반찬 가짓수가 많지만 그 중 가장 좋아하는 건 고등어 김치찜이다. 김장김치와 고등어를 함께 푹 익혀낸 찜 요리다. 단맛이 배인 가을무도 넉적하게 썰어 넣고 중불에서 익히는데, 무가 물렁해질 때까지 졸여 간이 골고루 밴다. 김치와 고등어의 조화도 기막히지만 달착지근한 가을무를 씹는 식감도 고등어 김치찜의 풍미를 더한다.

맨밥에는 열 반찬보다 고등어 김치찜 하나면 족하다. 딱히 반찬이 마땅치 않으면 아내에게 연락해 '들어올 때 '작은 부엌'에서 고등어 김치찜을 부탁해!'라고 이른다. 뭘 먹고 싶다는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는 아내 는 고등어 김치찜을 내려놓으며 '이게 그렇게 맛있어? 자주 먹어도 안 질려?'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다. 고등어 김치찜을 고급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등어 김치찜은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으니 서민 음식이라고 할 만하다. 이것은 누구나 큰 부담없이 먹을 만한 음식이다.

묵은 김치의 신 맛과 고등어의 무미한 맛은 합이 좋다. 이 음식의 베이스는 김치의 숙성된 맛이다. 김치가

맛없다면 고등어 김치찜이 맛있을 수 없다. 고등어 살은 수분이 적어 딱딱한 식감이다. 이 딱딱함을 김치의 신맛이 감싸며 어느 정도는 중화시키는 것이다. 고등어 김치찜이 맛있는 건 땅과 바다에서 나온 재료 궁합의 덕이다. 묵은 김치와 큰 멸치 한 줌을 균용강통 속 돼지 군은 기름, 즉 돈지(豚脂, 월남에 파병된 장병들이 돌아올며 가져온 것이라 했다)를 수저로 뚝뚝 떠 넣고 푹 익혀낸 음식과 어른이 되어 먹은 고등어 김치찜 맛이 겹쳐진다. 돼지기름이 녹아 배어 들어 고소하고 신 김치 맛이 얼마나 혀에 감칠 맛나게 달라붙던지! 고등어 김치찜은 밥도둑이다. 미뢰를 자극하는 김치의 깊은 신맛이 이글거리는 수저질을 하다보면 밥 한 공기사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

임진강 너머 북쪽에서 기러기 떼 찬서리 묻은 발가락 배에 붙이고 날아온다. 가을비 그친 대기는 파랗고 은행나무 아래 갈바닥엔 노란 은행잎이 수북하게 쌓였다. '작은 부엌' 아주머니의 고등어 김치찜을 먹을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며 허 밑에 단침이 핀다. 이것의 맛을 굳이 말하자면 늦가을의 맛있고, 세월의 더께가 만든 맛이다. 분명 어른이 좋아할 만한 맛이다. 어른이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웬만큼은 겪은 사람들이 아닐까. 따라서 어른의 맛있는 산 세월이 짧으면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신 세월의 맛일 테다.

날이 쌀쌀해지는 늦가을, 고등어 김치찜을 먹고 나서 지난번보다 더 단량한 사람이 될 것을 조용히 다짐한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나는 성격속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중 장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우연히 하와이 사람들도 모르는 '하와이 애국단'이라는 다큐 프로를 보게 되었다. 그 프로의 제작진은 각종 문헌을 통해 하와이 애국단의 존재와 활약상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하와이 애국단의 단원들이 대거 하와이 외곽 소도시인 와하아와 소재 올리브현합감리교회 교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밝혀낸다.

천신만고 끝에 하와이 애국단원 김예준(1880~1970) 선생의 장남(김영호, 88세)을 찾아내지만 첫 반응은 "우리 아버지는 지독한 구두쇠여서 독립운동자금을 댔을 리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왜 김씨는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전혀 모르는 것인가. 이는 김씨 가족뿐만 아니라 하와이 한인사회 일각에 만연한 분위기였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비밀결사'라는 방식을 택한 원인 외에도 이미 1920년대에 이승만 지지세력(동지회)과 반이승만 세력(국민회)으로 양분된 하와이 한인사회의 갈등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1945년 조국이 광복을 맞이했지만 1948년 이승만이

아버지의 삶을 깨달은 장자의 눈물

남한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오랜 기간 후원했던 국민회 출신들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와이총영사관에서 한국행 비자 발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사탕수수 농장이나 세탁소 등지에서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임금의 절반가량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바쳤고 결국 그토록 그리던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그들이지만 결국 마음속에 고국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70년이 흘렀고 역사는 소리 없이 단절됐다. 가족에게는 인식됐던 아버지가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중요한 인물임을 88세의 나이에 처음 알게 된 김영호 씨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나는 그 장면을 통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속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 즉 장자의 모습 중에 아버지를 이해 못하며 서운함을 표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장자는 아버지의 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동생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불만을 드러낸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고 평생을 아버지의 곁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자신을 수고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노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 즉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아닌, 오직 자신의 고생과 인정만이 중요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다. 주된 내용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마치 열린 결말처럼 말이다.

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결말을 상상해 보았다. 작은 아들은 거지꼴로 돌아온 자신을 받아준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았을 것이고 큰 아들은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도 자식을 키우며 인생을 살다가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었을 것으로 상상을 해보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장자의 깨우침'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희생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김영호씨가 뒤늦게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을 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장자의 태도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여겨진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감격 속에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이제는 장자의 깨달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에 비해 현재는 침체하고 하나님을 눈길줄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장자로 거듭날 때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어줄 때가 아닐까 싶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중 훈민정음처럼 창제 시기와 참여자가 기재된 언어는 찾을 수 없다.

어제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제 579돌을 기리는 날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려 이를 기념했다. 한글날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공휴일에서 빠져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정 휴일이 되었다. 그저 평범한 휴일 하루가 아닌 한글의 우수성과 위대함 그리고 편리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는 하나 아직도 문해력 증진에는 더 열심이어야 한다고 한다. 필자 역시 공영방송 프로그램 '우리말 겨루기'를 시청하고 한국어능력도 응시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한글은 형용사와 유유가 많고 인기도 많다. 외국인이 배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행히 세계 곳곳의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들어 음악, 음식 등 한국(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

이팝 데몬 헌터스' 제작자 매가강 감독은 매우 몇 시간씩 한글을 익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런 노력은 영화에 고스란히 담겼고 영화 소재로 등장한 문화유산과 서울 여행, 김밥, 라면 등이 일대 광풍을 일으키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한의(韓醫)로 봉사하고 있는 송영일 한의사의 말에 따르면 강제로 이주된 고려인 환자들은 '일없다.' '아직한다' 등의 단어를 꾸준히 사용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고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친구인 '베스트(Best friend)'라 칭했다. 처음에는 베프가 무슨 말인지 가우뚱했다. 일반 방송에서도 베프는 물론 '찐친' '절친' 등 다소 나이 든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과 외래어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 아파트 명칭은 아름다운 우리말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공기업 시공 아파트마저 영어와 외래어로 바뀌어 아쉽기도 하다. 요즘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정체불명 신조어와 외래어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

표현과 사용이 편리한 한글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슬기로운 한글 사용이 오래도록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길 소망한다.

社說

여야 소모적 정쟁, 민심 돌아보는 계기되길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여야가 민심과 이반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공식적인 휴일만 7일에 달할 정도로 역대급으로 길었다. 그런 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연휴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치권은 정쟁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실은 고소·고발전까지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의 비난 공격은 국격을 떨어뜨릴 정도로 수준이 낮았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송 녹화 시기를 문제 삼으며 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기까지 했다. 제1 야당의 대응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은 추석을 맞아 K푸드의 경쟁력을 전세계에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뤄졌다. 수시로 대재앙의를 하며 화재 대응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런데

도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화하는 것은 내란 정당으로 궁지에 몰려 출구를 찾지 못하는 제1 야당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를 흡집 내 얻을 것이 무엇인가.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민주당의 개혁과 관련해 “세상이 조금 시끄럽다”면서 “시끄럽지 않게 개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해 당정 간 온도차를 노출했다. 정경래와 추미애로 대표되는 민주당 강성 지도부의 언행에 중도층 일부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역민들의 추석 민심은 사뭇 등 정부 개혁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야는 추석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자기 편만 바라보며 정쟁을 일삼면서 민심의 역풍을 맞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전남에 오픈AI 테이터센터, 기념비적 투자

추석 연휴 직전에 전해진 전남에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소식이 벌써부터 기념비적인 투자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일 샘 올트만 오픈AI 대표와 전남에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 전남의 AI(인공지능)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SK그룹과 오픈AI가 전남에 짓기로 한 AI 데이터센터 규모는 GPU 1만개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용량 20MW 규모로 SK 그룹이 아마존과 협업해 울산에 짓기로 한 데이터센터에 비해서는 작지만 협력 상대가 챗GPT 개발사로 지구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오픈AI라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 8월 말 헬리콥터를

타고 해남과 영암 일대를 둘러봤다고 하는데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모양이다. 솔라시도는 이미 98M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필수적인 냉각수도 풍부해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오픈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자연스레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AI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는 RE100 산업단지가 전남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고 한전도 계통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천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쾌거”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빈말이 되지 않도록 기념비적 투자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옛날 생각하면 신기한 것 중의 하나가 '악수'이다.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 만났다. 실시간으로 연락을 할 수 없던 시절을 지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게 됐고 세상의 소식을 실 새 없이 접할 수 있게 됐다. 새롭고 더 빨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24시간을 살고 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변했다. 이제는 '영상의 홍수 시대'다. 핸드폰을 열면 영상이 쏟아진다. 글과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영상이 선택될 때가 많다. 영상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채널들도 흔히 말하는 '숏폼'인 짧은 영상으로 사람들을 공략하고 있다. 얼마 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카카오톡도 개편을 통해 숏폼을 주력 콘텐츠로 내세웠다. 친구들이 올린 사진, 영상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감성을 가미하기도 했다. 단순한 메신저 역할을 넘어 소셜 미디어로 확장하겠다는 야심이다.

반응은 극과 극이다. 지인과의 친목 도구를 넘어 업무를 위한 채널로 카카오톡이 확장된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불편한

정보판이 됐다. 영상 시대를 사는 어린 세대에는 볼거리가 더 많아진 반가운 변화다. 덕분에 자국적인 틱톡이나 유튜브를 제한했던 부모들은 부랴부랴 보호조치에 나서고 있다.

뉴스와 정보는 물론 이제는 보통사람들의 일상도 영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사람들은 좋은 풍경·맛있는 음식 앞에서, 사고 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부터 켜다. 모든 것을 영상으로 남겨야 할 것 같은 시대가 됐고, 이웃사촌이 아니라 인터넷 사촌 쏟아진다. 글과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영상이 선택될 때가 많다. 영상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채널들도 흔히 말하는 '숏폼'인 짧은 영상으로 사람들을 공략하고 있다. 얼마 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카카오톡도 개편을 통해 숏폼을 주력 콘텐츠로 내세웠다. 친구들이 올린 사진, 영상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감성을 가미하기도 했다. 단순한 메신저 역할을 넘어 소셜 미디어로 확장하겠다는 야심이다.

반응은 극과 극이다. 지인과의 친목 도구를 넘어 업무를 위한 채널로 카카오톡이 확장된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불편한

/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wool@